

# 등공대 '해탈의 길' 오르는 일본인들

## 2011 한·일 관광교류 박람회 참석 일본인 등 40명 고성 방문

2011 한·일 관광교류 박람회 행사로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과 관광업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지난 12일 동해안 최북단 고성군을 방문해 '관동별곡 8백리길'을 비롯한 고성지역 주요관광지를 탐방했다.

일본 관광객 유치 및 민간교류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일본 홍보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주)브라이트스푼과 김효선 작가의 인솔로 진행됐다.

가가와현 관광협회, 미나미보소 관광연맹, 마쓰에시 관광협회 등 일본 관광업체 관계자 및 지자체 관광업무 공무원과 프레비엥, 엘림여행사, 한교투어 등 한국 관광업체 관계자 등이 참가했다.

방문객들은 금강산 건봉사를 찾아 '만일 법회를 마치고 살아 있는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오르

면서 몸을 벗어 버리고 마음만 부처의 연화세계로 들어갔다'는 '등공대 해탈의 길'을 산행하고, 통일전망대와 6·5체험전시관, 화진포의 성 등을 관람했다.

또한 '옛 것 그대로 시간이 멈춘' 왕곡마을을 둘러보고, 송지호 호수, 철새관망타워에 이르는 송지호 산소길을 걸으면서 송지호 호수와 산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둘러봤다.

고성군은 이번 답사를 위해 주요 관광지 해설사를 함께 동행시켜 지역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안내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

한편 고성군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호텔신라 등 수도권 관광·홍보업체 관계자 27명을 초청해 '2011년 관광홍보 캠프'를 실시했다.

최광호 기자



지난 12일 '2011 한·일 관광교류 박람회' 행사로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 40여명이 고성군을 찾아, 금강산 건봉사 '등공대 해탈의 길'을 오르고 있다.

# “고성군과 교류하고 싶어요”

## 인도네시아 반둥군 관계자들 방문 ... 고성군, 답방 후 결정 계획

지난 8월 인도네시아 반둥군 소재 파순단대학교 고성 소재 경동대간 교류협정이 체결된 가운데, 반둥군 관계자들이 고성군과의 교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고성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반둥군 대대 알루마지 부군수 등 일행 12명과 IKOF(인도네시아-대한민국 교류 협력 기구) 김한태 사무총장 등 13명이 참여했다.

방문단은 12일 고성군에 도착해 강원심층수 및 상하수도사업소를 견학하고, 13일에는 건봉사, 해양박물관,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 등을 탐방하고 환경자원사업소 등 환경시설을 방문했다.

또한 14일은 통일전망대와 DMZ박물관을 시찰하고 (주)강원



고성군과의 교류를 위해 방문한 인도네시아 반둥군 관계자들이 군청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심층수 시설을 견학했으며, 15일에는 화암사 산행 및 투어를 통해 고성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만끽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반둥과의 교류문제는 앞으로 우

리군의 답방이 이뤄진 뒤 검토될 것으로 안다”며 “일단 이번 5일간의 고성군 방문에서 친절하고 깨끗한 고성군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주력했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 산불예방 위해 입산통제

## 고성군, 11월1~12월15일까지

산림 6,646ha  
등산로 32.9ha

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입산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고성군은 11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21개리 6,646ha의 산림에 대해 입산통제하고, 6개 지역 15개 등산로 32.9ha를 폐쇄하기로 했다.

등산로 폐쇄구간은 간성읍의 경우 6개 노선 중 종합운동장~수성샘터 구간만 남기고 5개 노선을 모두 폐쇄한다.

거진읍은 등대공원~공군부대 구간, 현내면은 관음사~약수터 구간, 죽왕면은 마좌리 죽변산 주변의 등산로가 폐쇄된다.

이 기간 동안 입산통제

다만 숲 가꾸기 등 산림산업, 산불방지 활동, 군부대 작전 수행, 성묘 등을 위한 입산은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의 필지별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청 농정산림과 전화 680-3386~8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통제를 하는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경조사·모임·구인·구직·개업 생활정보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생활정보  
접수방법

◆전화 : 681-1666~7 ◆팩스 : 681-1668  
◆이메일 : goseongnews@hanmail.net ◆핸드폰 문자 010-2022-2633  
※매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된 내용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자 신문에 게재해 드립니다.

독자제보 ☎681-1666  
구독신청 ☎681-1667